



야구전문가 11명 긴급 설문... "한국시리즈 우승은 누구?"

KIA 5명 < 두산 6명

KIA "막강선발 불펜전진 이점" vs 두산 "우승경험 실전감각 강점"



▲ KIA 김기태 감독

▲ 두산 김태형 감독

"톡 까놓고 답했습니다" ※ 해설위원 총 11명·가나다순



전문가 대부분 6차전 이상 장기간 예상
KIA-최형우 두산-니퍼트가 우승 키포인트



KIA와 두산이 맞붙을 2017년 한국시리즈(KS·4선승제)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25일부터 펼쳐질 35번째 KS를 앞두고 관심사는 단연 우승의 향방이다. 이에 스포츠동아는 23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범현 스포츠

츠동아 해설위원을 비롯한 총 11명의 전문가에게 '우승의 영광은 어디로 갈지? 몇 차전까지 이어질지? 양팀의 키포인트는 누구인지? 각팀의 비교우위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물었다(그래픽 참고).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비실명을 전제로 한 설문에서 11인의 전문가들은 '백중지세'를 점쳤다.

● KIA 5명 < 두산 6명

전체적으로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다만 플레이오프(PO)부터 올라온 정규시즌 2위 두산의 우승을 전망한 전문가가 6명으로 근소하게 많았다. 5명이 페넨트레이스 1위 KIA의 우승을 내다봤다. 두산의 우세를 점친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2년 연속 KS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의 '경험', 폭발적 타력을 바탕으로 통과한 PO 4경기를 통해 가다듬은 '실전감각'이다. KIA의 손을 들어준 이들이 주목한 근거도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허덕-양현종의 원투펀치를 앞세운 막강 '선발진', 정규시즌 동안 누적된 불펜의 피로도를 풀어주기에 충분했을 '휴식'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KS 관련기사 2·3면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한축구협회 김호곤(왼쪽)과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이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다. 해명과 사과가 이어진 가운데 고성 석인 설전도 이따금 오갔다.

국감 오를 '스포츠 비리' 의혹

김호곤 "히딩크 감독제안은 폐, 사실 아니다" 구본능 "연말 깨끗이 퇴진...뺨 때려줘 감사"

국내 양대 프로스포츠를 총괄하는 최고위 실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날선 문책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KFA) 김호곤(66) 부회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양해영(56) 사무총장은 23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구본능(68) KBO 총재는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축구계와 야구계에 불거진 문제들을 둘러싸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열렸다. KFA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축구국가대표팀이었다. 전임 올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을 사퇴시킨 축구협회는 7월 신태용(47) 감독으로 교체한 뒤로도 부진한 경기를 이어가 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스 히딩크(71·네덜란드) 감독 측이 대표팀 부임 의사를 전했지만 김 부회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

이와 더불어 KFA 임원들의 배임혐의까지 드러나 비난의 화살은 거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어떠한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히딩크 영입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회장은 "히딩크 감독 측의 요구를 은폐·묵살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배(60)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무엇이 은폐이고 묵살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두고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여기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히딩크 감독과는 끝이 났다. 본인 역시 방송해설 때문에 직함을 가질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KBO를 이끄는 구본능 총재와 양해영 사무총장 역시 의원들의 문책세례를 피해갈 수 없었다. KBO는 최근 A심판과 몇몇 구단 간의 금품수수 논란을 비롯해 사업과정에서의 비리혐의가 언론에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호곤 부회장의 질의응답 시간과는 달리 KBO 관련문제를 다룬 국정감사에서 참고인과 의원석 간의 격한 고성인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62) 의원이 "최근 사태들과 관련해 양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구 총재는 양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동반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구 총재는 "야구계를 총괄할 사람은 양 사무총장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손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구 총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지 않아도 양 사무총장과 깨끗이 관두고 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누가 더 나은지 비교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울고 싶은뺨을 때려줘서 감사하다"고 날카롭게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개수 제한과 부족한 보장금액의 아쉬움을 덜어드릴 새로운 차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NAVER 라이나생명다이렉트

개수의 부담을 줄인 보장! 든든한 보장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욱 새롭게!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 개수 제한 없이! 재료구분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도제(세라믹), 테세라 개당 13만원, 레진 등 개당 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도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 임플란트 70만원, 브릿지 35만원 / 틀니 연 1회 70만원(특약 가입 시)
 - 특약: 0세~55세 가입 가능, 가입나이 56세~70세 고령은 주계약만 가입 가능하며,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영구치 발치 후 그 지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꾸준히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는 더욱 새롭게!
 - 개수 제한 없는 신경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잇몸치료 / 스케일링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총차나 잇몸 치료 시 정액 보장
 - 잇몸질환치료 및 스케일링 : 국민건강보험 환복 또는 의료급여형에 한함

모든 보장 받아도 만가지급금 50만원 지급(만기 생존 시)

0세~70세까지 온가족 가입 가능(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표】

40세 기준	남자	여자
주계약	31,000원	28,200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	4,480원	2,780원
합계	35,480원	28,980원

*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 2,000만원
보장기간: 10년간, 납입기간: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 가입, 특약(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주계약 0세~70세 / 특약 0세~55세 / 가입나이, 생애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계약기간	이대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25,760원	0원	0.0%
3년	1,277,280원	4,529원	0.3%
5년	2,128,800원	278,287원	13.0%
10년	4,257,600원	500,000원	11.7%

* 기준: 4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 가입, 특약(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 2,000만원
* 중도 해지 시 해당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위 보장 내용은 차이유(손해), 차유(환원)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100% 보장됩니다 (다량의 연세/건강/연령 위험 포함)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본 상품은 10년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 기간 월납, 주계약은 만기 지급금,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보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 약관과 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전자 서명을 해.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일탈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장법에 따라 예금지보장액이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산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080-059-9000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급 전화하세요